

社說

실험정신 부재한 대동제

일주일 간의 대동제가 막을 내렸다. 먼저 부족한 준비인원과 대다수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묵묵히 대동제를 기획하고 일주일 간의 행사를 치렀던 실무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올해 대동제는 행사 기간중 잦은 우천관계로 기대만큼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다. 특히나 대동제 마지막 행사인 '사자머리대기'는 갑작스런 비로 인해 참여인원이나 관심도가 민망할 정도였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이번 대동제를 기획해낸 이들에게 부족함을 탓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학특유의 문화적 생산능력을 잃어간다는 지적앞에서 무언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흔히 대학의 문화는 대안 문화의 창조와 생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의 끊임없는 실험과 시도는 또다른 생산을 위한 요건인 장이 되는 것이다. 대동제는 그러한 실험과 시도의 절정이자 하나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다. 때문에 매년 대동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대학인의 진지한 성찰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대학에서 있었던 대동제가 그러한 실험정신을 얼마나 구현하고 시도하고자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칫 눈요기거리와 교문 밖의 화려한 주점을 그대로 캠퍼스 내로 옮겨 놓은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지루한 비판들이 대동제 기획주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면이 없지는 않다. 실무자로서의 고충과 열악한 여건을 도무지 감안하려 하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항변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 된다는 비판의 한 구석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들의 맥이라도 보여주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

이른바 문화의 시대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에, 정작 문화적 담론들을 생산하고 이끌어 온 대학이 소비문화의 한끝만을 따라간다는 지적 앞에서 실무자는 물론 대학인 스스로의 경종이 아쉬운 한 주다.

없어져야 할 과잉진압

지난 3월 한보비리규명과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사망한 고 류재욱군의 장례식이 23일 유족결 끝내 치루어졌다. 류재욱군이 숨진지 거의 세달이 다되어 가는 지금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을 요구하는 유족·학생측과 먼저 부검과 목격자 조사를 주장하는 경찰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장례식마저 최루가스나 가득한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입은채 마쳤기 때문이다.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도 눈물과 상처로 얼룩진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렇게 고인을 보낼 수 밖에 없는 모습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아직도 이 땅에 젊은이들이 시위도 중에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고 파를 흘려야만하는 현실이다. 과거 독재정권시절 경찰의 진압봉에 희생된 이한열열사로부터 강경대, 김귀정등 우리는 술한 젊은 영혼을 역사에 묻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다치고 부상을 입어야만 했다. 그들의 값진 피로 우리는 지금의 자유와 작은 민주주의를 얻었지만, 여전히 파를 흘리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류재욱군처럼 시위도중 숨겨지는 학생이 있고, 그들의 사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채 최루탄이 자욱한 장례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과잉 폭력진압과 원천봉쇄에 의해 시위를 막아보려는 경찰이 있고, 젊은이들의 희생에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들 모두 우리의 형제, 자매인 젊은이들의 희생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술하게 시위문화에 대해 논의와 질타가 있었지만, 진압방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더 이상은 젊은이들의 값비싼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이는 집회는 무조건 봉쇄와 과잉진압으로 대응하기만하는 구태의연한 방식도 고쳐져야 한다. 더욱이 장례식마저 고인이 편안히 눈을 감을수 없게 가로막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무조건 막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것만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는 길이다.

특별기고

대학 기업경영방식 도입에 대한 고찰

효율적 학사행정 추구할 시기

박 중 근

(사무처 총무과장)

교육시장 개방과 대학간 무한경쟁 체제 돌입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각 대학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열중이다. 몇몇 대학들은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하는 한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행정 전문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에 없는 변신을 시도중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대학 행정 직원들이 가장 비중있게 관심을 두는 것은 팀제의 도입이다. 성공한 대학을 비롯하여 몇몇 대학이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이후로 대학의 직원사회에는 팀제 도입에 따른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팀제 도입론자들은 팀제가 조직을 유연하게 하고, 의사결정단계를 축소하며,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등, 마치 현재 우리 조직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술방망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팀제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료주의 조직의 병리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최선의 조직 설계방식이라면 대학이라고 해서 팀제의 도입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행정조직에 팀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몇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비교적 보수적이며 안정적 집단인 대학 행정

팀명	청	담당 업무
법률팀	규정, 노무, 세무, 교육법, 기타 법률에 관한 업무	
행정개선팀	사무개선, 제도개선, 능률향상, 전산화	
인사제도개선팀	승진, 승급, 전보, 직제, 급여, 인사사고, 교육	
복지개선팀	교직원, 동문, 학생복지, 동문회활동, 밝은사회운동, 경회가족운동	
학생지도팀	학생지도에 관한 업무	
정책개발팀	입시, 경영, 수익사업	
환경관리팀	공해, 쓰레기처리, 산림보호, 청소, 교내미화	
시설관리팀	안전, 방화, 건물유지, 시설활동	
홍보·봉사팀	지역사회봉사, 홍보, 행사	

▲대학행정에 도입 가능한 TF팀 종류

능률적 팀제로 가기 위해 TF팀 활용

직원들이 급격한 조직변화에 쉽게 적응했는가의 문제다. 실제로 팀제 도입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대학도 있으며,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팀제 도입을 포기한 대학도 있다.

둘째, 대학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기업에서 적용되는 조직원리가 학교 행정조직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회사조직의 이상적인 조직 설계방식이라고 해서 도입된 팀제가 수많은 기업들에서조차 시행착오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학행정 조직을 팀제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행정조직의 특성, 팀제 도입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새로운 제도로입

에 대한 구성원들의 저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볼 만하다.

즉 검증되지 않은 팀제를 성급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조직에 별도의 Task Force Team(이하 TF팀)을 편성하여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안이다.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하는 TF팀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성공확률이 높고 팀제로의 전환이 가능한 일부 부서를 팀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팀제로의 개편요구가 강해지면 전체조직을 팀으로 개편해 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행정 조직에 TF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문성을 요하거나, 소관 부서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나 담당하기를 꺼려한다. 특히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대처방안이 효과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처럼 행정 공백이 생기기 쉬운 업무나 행정력을 집중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은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TF팀의 종류는 표와 같은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TF팀 조직은 기획관리실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목표설정과 목표관리가 가능한 최소의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팀장은 현재의 직책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조원들이 선출하며, 팀장은 팀 조직 운영에 따른 제반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띤다. 팀조직의 하부에는 3~5개의 파트조직을 두며, 파트는 개별사업단위로 구성하게 된다. 파트장은 팀장이 임명하며, 팀장의 지시를 받아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PC

통신원

'성조기 패션' 추방하자

무분별한 서구화로 문화적 식민지 우려

빨강, 파랑에 하얀 별까지 뒤섞인 무늬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종종 눈에 띄곤 한다. 다름아닌 '성조기 패션'이다. 커다란 미국 국기를 가슴에 달고 다닌다. 혹은 약간의 변형을 통해 새롭게 디자인된 무늬가 옷에 거저기에 찍혀있다. 원색 사용에서 오는 시각적 효과와 세련되어 보인다는 인식의 덕택으로 성조기는 제법 인기있는 문양이 되어 버렸다.

옷을 입는다는 건 아름다운 추구의 한 방법이며, 그 사람의 기호에 따른 것이므로 쉽게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국기를 멋있게 몸에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PC통신 하이텔에선 최근 이런 '성조기 패션'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성조기가 디자인된 옷을 비판없이 입게 된 데는 서구적 사고가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들이 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문화는 이미 서구적이고,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동일시하는 혼돈상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ID : pagans) 또한, 무분별한 외국어 지상주의와 주체성 없는 강대국 외교도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미국의 식민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고 한

다.(ID : NAUSICAA)

반면 옷을 살 때 일일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단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그런 옷을 입게 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단지 서구적인 흐름을 거부하기 위해 성조기 패션을 반대한다면 이미 우리가 입고다니는 양복이나 청바지 등도 벗어 버리고 한복만 입어야 할 것이라 한다. (ID : Kuruma01) 옷에 성조기가 새겨져 있어도 무늬로만 생각할 뿐이라며 웃는 것은 자기 마음이라는 의견도 있다. (ID : in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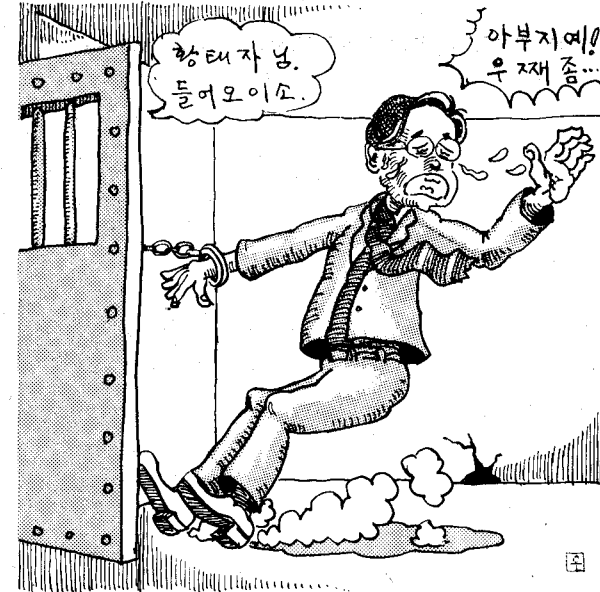
한편 성조기패션에 대항하기 위해 태극기 문양을 의류 디자인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이색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옷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다면 더러워질 우려 때문에 입고 다니기가 힘들겠지만 국기에 대한 친근감과 애국심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한다. (ID : H8RED)

성조기 패션은 문화적 식민지화의 반영일 수도 있고 강한 개성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옷차림은 전략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금, 성조기 패션은 과연 어떤 전략일지 궁궁궁이 남는다.

(최홍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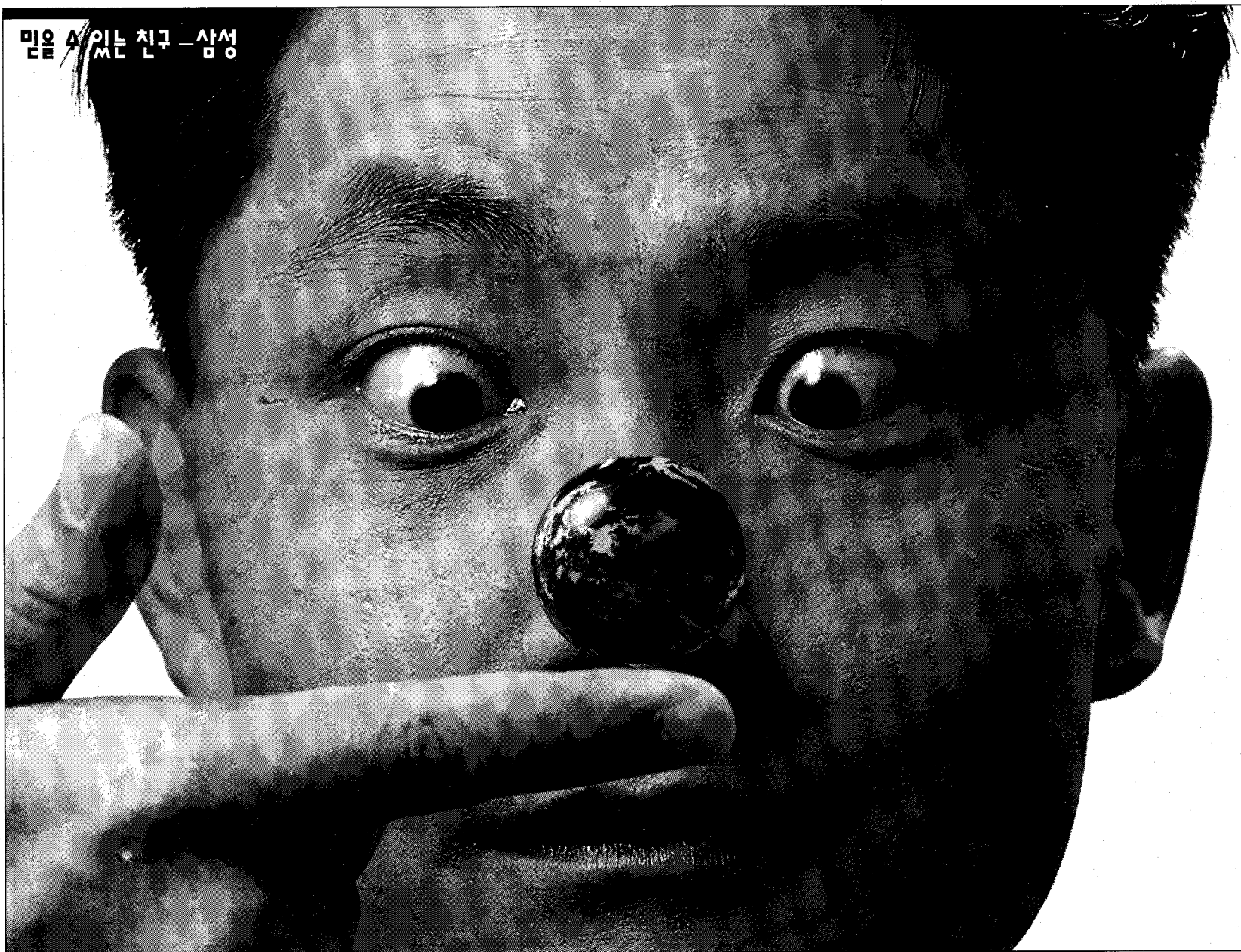
고 황 만 평

김 진 우



"아직 니 순서가 아네테..."

믿을 4 있는 친구 - 삼성



지구의 보험료는 얼마일까?

환경오염, 전쟁, 기아... 온갖 고민에 쌓여있던 지구가 어느날 보험가입을 신청했다? 가입신청서를 받아든 삼성화재의 보험전문가들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위험과 돌발사태 등을 예측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구 뿐만 아니라, 작은 보험상품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전문가들은 치밀한 분석과 오랜 연구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동차, 화재, 해상에서 무궁화위성보험과 같은 수많은 특종보험까지 다루는 삼성화재는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보험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는 한결 높은 전문성과 과학성으로 어려울 때 더욱 힘이 되는 친구로 자리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

SAMSUNG

삼성화재

삼성화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nsurance.samsung.co.kr